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 발언

2023. 4. 24. (월) 09:30
마포 프론트원 5층 박병원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해외진출 사례발표를 준비해주신
핀테크 기업 대표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필요성

핀테크 기업은 그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금융회사의 경쟁자로 성장*하였습니다.

* 핀테크 기업 수 : ('13년) 94개사 → ('21년) 553개사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등이
이러한 금융혁신과 핀테크 발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핀테크 유니콘 수*,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 등을 보면
아직 한국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 핀테크 유니콘 252개 중 한국 1개('22.12월) / ** ('19년) 18위 → ('21년) 26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한국 핀테크 생태계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며,
글로벌 진출 활성화가
그 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핀테크 산업은 “손안의 금융” 이라는 닌네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으며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글로벌 진출이 다른 산업에 비해 용이합니다.

또한 한국의 높은 ICT 인프라 수준과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세계적인 성공사례가 있다는 것은
해외 현지기업 혹은 기관들과 제휴·협력시
유리한 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소비자 성향에
적응하며 성장해온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은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수시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 모델을 통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고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국내 유니콘 15개사 중 핀테크 분야는 1개사로 6% 수준임에 비해 해외 유니콘
1,205개사 중 핀테크 분야는 252개사로 21% 수준('22.12월 / CB insight)

특히 향후 금융의 빠른 디지털 전환이 예상되고
국내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동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 핀테크 기업의 발걸음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III.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핀테크 기업 중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2.7%^{*}에 불과하며, 현지 정보부족 및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계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021년 핀테크 산업 현황조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22.12.26일 발표)

① 첫째, 해외진출 지원 전략 및 체계 정비입니다.

핀테크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정보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별로 핀테크 관련 시장규모, 파트너 후보, 경쟁사 등을 조사하여 유망 핀테크 서비스 진출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역량을 보유한 현지 기업·기관과 파트너십을 확보해 공동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현지화하고 해외 핀테크 랩 등 현지 보육공간^{*}을 활용하여 해외 거점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한은행(베트남, 인도네시아), KB국민은행(싱가포르), 우리은행(베트남) 등 해외 핀테크 랩, K-Startup 센터(미국, 싱가포르 등) 활용

② 둘째, 해외 투자자 및 인력 Pool 제공입니다.

해외 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정보와
글로벌 펀드 등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진출과 투자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 특정 비율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운영지침으로 하는 경우 多

또한, 한국어에 능통한 유학생 등
인력 Pool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진출 시 주요 애로 사항(핀테크 산업현황 조사/’21년)

- ① 시장정보 부족(46.9%) ② 현지 규제, 정책 등에 의한 진입장벽(37.5%)
- ③ 해외 바이어·수요 발굴 / 해외 제휴·합작 파트너사 발굴(각 32.8%)

③ 셋째, 해외진출 관련 지원정보 제공과 컨설팅입니다.

초기 진출전략 수립부터 서비스 고도화까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핀테크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사업 등을 집적하여
추천하고 사업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해외진출 지원 주요사업 현황(총 50개) : ①사업화 지원 - 25개, ②시설·공간·
보육 지원 - 4개, ③멘토링·컨설팅 지원 - 12개, ④행사·네트워킹 지원 - 9개

IV. 맺음말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는
핀테크 산업 재도약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입니다.

핀테크 산업이 그동안 금융혁신의 동력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당국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핀테크 랩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핀테크 기업 대표님들께서
직접 그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밑거름이 되어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